

개미

게으른 사람을 훈계할 때에, 우리는 흔히 「개미를 못 보느냐?」 한다. 개미를 본받아 부지런히 노동하라는 말이다. 개미는 봄, 여름, 가을을 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싫증을 내지도 않고—쉬어가면서 일을 하는지 싫증을 내어 껍을 피며 일을 하는지 모를 일이지만, 인간의 감격벽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일을 한다. 그리고는 겨울에 날이 추운 때는 굴 속에서 봄, 여름, 가을 동안에 저축해둔 양식으로 편히 먹고 쉰다. 이 사실을 우리 인간의 논리로 생각하여 본다면—개미는 인간과 비교하여 볼 때 기막히게 미소한 생물이지만 대단히 원대한 개미의 1년은 인간 백 년에 비교해도 될 것이다—계획과 예비심이 있다는 것이 된다.

이에 사람은 개미의 노동은 원대한 계획을 가진 유목적적(有目的的)인 노동이요 또 그 노동의 보수로 추운 겨울에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쉰다고 믿고 여기서 우리 인간에 대한 교훈을 찾아 개미를 산 귀감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이 교훈이 힘이 있으려면 개미의 노동은 유목적적인 노동이며 그 목적에 상응한 보수를 반드시 받고 있다는 것을 교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믿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요사이 이 믿음에 동요를 느꼈다. 그것은 겨울에도 노동을 하는 개미를 발견했기 때문

이다.

우리집 안방 벽 사이에 개미가 한 떼 산다. 그런데 이놈들은 구멍을 방 안으로와 방 바깥 마루 밑으로 두 갈래를 뚫어 놓고 산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양식이 될 만한 것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방과 마루를 국토로 가지게 되어 말하자면 대단히 행복한 의족(蟻族)이다. 더욱이 우리집에는 밥을 먹기보다도 흘리기를 더 많이 하는 어린것이 있고 또 우리 가족이 모두가 인자한 마음의 소유자들이라 살생을 하지 않는 데서라. 환경이 이와 같음으로 이 개미떼들이 겨울 양식을 저장하기는 딴 개미떼들보다도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하 20도가 가까운 요사는 굴 속 깊어서 편히 먹고 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놈들이 요사 이도 역시 방 안으로 양식 사냥을 나온다.

처음에는 나는 이놈들이 아마 심심하니까 방 안으로 산보를 나오는 것이겠지 하였다. 그런데 이놈들이 돌아갈 때는 반드시 무엇을 물고 가는 것을 보면 개미가 이렇게 나와서 방 안으로 싸다니는 것은 양식을 구해서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단정하고 나는, 나에게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났다. 대체 개미는 봄, 여름, 가을을 두고 저장해둔 양식이 벌써 동이 났을까? 아무래도 벌써 동이 난 것만 같다. 하기가 아직도 양식이 많이 남았는데도 명년(明年)의 봄, 여름, 가을을 위하여 저장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따뜻하고 노동하기 좋은 때를 위하여 겨울에 노동을 한다는 것은 아까 개미의 노동에 대하여 감격케 한 우리 인간의 논리로—이 논리는 전우주의 법칙을 파악하는 것이다—보아 타당치 못하다. 그러므로 동이 난 것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 단정할 때는 여기 또 큰 문제가 일어난다.

이 개미들이 양식이 벌써 떨어졌다면, 이 개미들은 양식의 저장이 불충분했던 것이며 양식의 저장이 불충분했다는 것은 따뜻할 때 노동을

열심히 안했다는 것이 된다. 결국은 개미 중에도 게으른 개미가 있다는 것이 되어 「개미를 본받아라」 하는 교훈이 아무런 설복성도 가지지 못하게 되고 만다. 하기가 이 개미들은 「우리는 겨울에도 따뜻한 방 안에서 충분히 식량을 구할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뜻할 때에 피땀을 흘릴 필요를 인정치 않았었노라」고 변명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래도 궁한 변명일 것에 틀림없다. 혹은 개미는 정말로 부지런해서 노동을 할 수만 있는 환경에 있어서는 언제나 노동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개미의 노동은 숙명적인 노동으로 사람은 개미의 근면을 결코 본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박문》, 3권 2호, 1940. 2. 1)